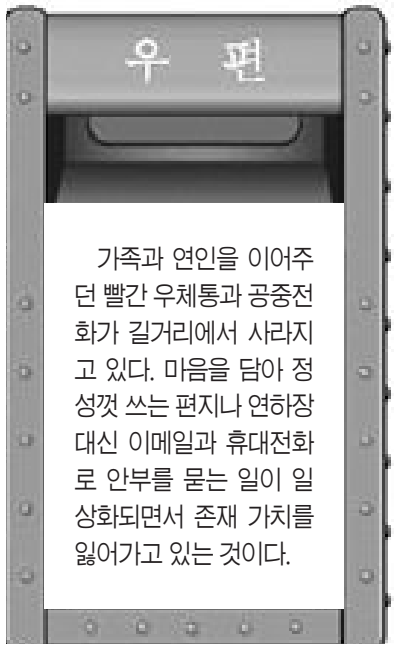


[사회]

추억속으로 배달된 빨간 우체통

7년새 절반 줄어...이메일·휴대전화에 밀려 공중전화도 사라져



가족과 연인을 이어주던 빨간 우체통과 공중전화가 길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다. 마음을 담아 작성할 수 있는 편지나 연하장 대신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존재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전남체신청과 KT링크스에 따르면 3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빨간 우체통 수는 2천907개(광주 698개·전남 2천209개). 이 숫자는 7년 전인 지난 2001년 5천74개(광주 956개·전남 4천784개)에 비해 절반 가까운 43%가 줄어든 것이다. 우체통은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한 2001년 5천74개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02

년 4천999개(광주 919개·전남 4천80개) ▲2006년 3천869개(광주 783개·전남 3천86개) ▲2007년 2천976개(광주 704개·전남2천272개)로 감소했다. 읍·면에서도 69개가 줄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7년여동안 1천909개가 사라졌다. 빨간 우체통과 함께 공중전화도 줄고 있다. 지난 2000년 5만3천501대였던 광주·전남지역 공중전화는

▲2001년 4만8천919대 ▲2003년 3만7천5510대 ▲2005년 2만7천476대 ▲2007년 1만8천919대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1천519대가 줄어 지난 9월 말 현재 1만7천400대만이 남았다. 길거리 곳곳에 자리한 무인공중전화의 경우 2000년 1만3천771대에서 ▲2001년 1만2천964대 ▲2005년 1만1천820대 ▲2006년 1만

339대 ▲2007년 9천354대로 줄어 1만대가 무너졌다. 올해 들어서도 20대가 늘어 현재 설치대수는 9천374대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식당 등 업소에서 개인이 회선을 임대해 사용하는 자급공중전화 역시 2000년 3만9천730대에서 ▲2003년 2만5천78대 ▲2004년 1만9천993대 ▲2007년 9천565대 ▲2008년 9월 현재 8천26대로 8년 사이에 전체의 80%인 3만1천704대가 사라졌다.

전남체신청 김영선 주무관은 "인터넷 전자메일과 메시지, 휴대전화가 일상화돼 우체통과 공중전화는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차가운 아침 공기

대체로 맑았으며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이 있겠다.

광주	구름 조금	7~18℃
전남	구름 조금	9~19℃
전북	구름 조금	10~18℃
충청	구름 조금	8~19℃
경상	구름 조금	5~20℃
강원	구름 조금	5~19℃
제주	구름 조금	4~19℃
서울	구름 조금	4~19℃
부산	구름 조금	4~19℃
대구	구름 조금	5~18℃
인천	구름 조금	7~19℃
대전	구름 조금	4~19℃
전주	구름 조금	0~19℃
목포	구름 조금	13~18℃

11월 4일 (음 10월 7일) 전국날씨

서울남부 앞바다=북동~북동풍 파고 0.5~1.0m
남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 파고 0.5~1.0m
남해북부 앞바다=북서~북동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4:57 썰물 < 10:17
목포 밀물 < 17:52 썰물 < 23:24
여수 밀물 < 12:31 썰물 < 19:00

▲해돋이 06:56 ▲해질 17:35 ▲달돋이 12:18 ▲달짐 22:14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날씨						
최저/최고	10/21	12/18	10/17	9/17	7/16	6/16

도난 우편물 가방 불탄 채 발견

도난당한 고지서 등이 든 우편물 가방이 불에 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오후 3시에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모 아파트에서 광주 광산우체국 직원 A(40)씨가 우편물 배달 중 도로 사이에 실린 우편물 가방을 도난당했다. 이 우편물 가방에는 고지서 등 우편물 10여 통이 담겨 있었다. 우편물

가방은 도난 신고 직후 이 아파트 4층 복도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또 4층 복도 벽면에는 우편물 반송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경찰은 어린 이들의 장난이거나 정신이상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산우체국은 전소된 우편물의 내용물을 확인한 뒤 재발행 및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안개 도시’ 광주 미세먼지와 수증기가 서풍을 타고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3일 광주·전남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 이날 오전 광주시 서구 양동 금호생명 빌딩 옥상에서 바라본 광주시내가 자욱한 안개에 잠겨있다. /위정욱기자 jrwi@kwangju.co.kr

“가난해도 공부 중단 없게”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학생 전액 장학금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전원에 대해 무상 장학금이 지급되고 근로 장학금 지급인원과 금액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 가운데 정부 학자금 지원액수를 당초 4천454억원에서 2천971억원 늘린 7천425억원으로 확장, 수정 예산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 장학금은 지원 시기를 앞당겨 내년부터 당장 적용된다. 교과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학부생 전원에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올해 2학기에는 신입생

외에 학부생 2학년까지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경우 내년에 3만명을 추가 선발해 총 3만6천500명에게 지원하고 1인당 지원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보조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올 2학기부터 내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을 확대해 소득 하위 3~5분위 학생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당초 6.65%에서 6.3%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학자금 대출 학생들이 거치기간에 실제로 부담하는 평균 금리는 올 1학기 4.82%에서 2학기 4.54%로 낮아지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연필뉴스

1천조분의 1 순간도 포착 가능

광주과학기술원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동’ 건립

차세대 레이저 연구의 분산이 될 ‘극초단(極超短) 광양자빔 특수연구동’이 건립됐다. 광주과학기술원은 3일 고등광기술 연구소 내 펄스과학기술연구센터에서 극초단 광양자(光量子)빔 특수연구동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649억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펄스과학기술 연구의 핵심 시설인 초고속 레이저 연구시설 설치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기술을 개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시설 준공으로 초강력,

이 시설은 펄스(1천조분의 1초)의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초고강도의 빛을 발생시키는 극초단 광양자빔을 이용한 차세대 융합기술의 필수적 시설이다. 펄스과학기술은 기존 과학기술로는 관찰할 수 없었던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이른바 시간의 극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면 미세세계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이나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도는 움직임 등 물리, 화학, 생물학적 초고속 현상의 신비를 벗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초고속 레이저를 이용한 소형 가속기 개발 연구도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고정장(高固定) 광양자빔 연구 시설이 건립되면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펄스과학 선진국인 G-6에 진입하게 된다.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광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연구동 개설로 암 치료에 효과적인 양성자나 중성자 X선보다 훨씬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며 “펄스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답안 바꿔 적어 0점’ 사시 규정 합헌

사법시험 2차에서 실수로 1, 2번 답안지를 바꿔 적었을 때 영점 처리하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김모씨가 “2차 시험에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적지 않으면 영점 처리하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결여했다”며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사법시험 2차 행정법 답안을 적으면서 1번과 2번을 바꿔 적는 바람에 영점을 받아 탈락했는데, 행정법에서 과락을 면하기 위한 최저점수(40점)만 받았어도 합격선을 넘는 상황

이었다. 재판부는 “사법시험 제정의 신속성·공정성·효율성을 위해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 적도록 요구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이 같은 내용이 응시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됐다”는 이유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대현·이동홍 재판관은 “이 사건 규칙은 사법시험 답안지의 점수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해 규칙 자체만으로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게임장 단속 경찰관

금품수수 의혹 수사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업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와 함께 감찰을 벌이고 있다. 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서 모 지구에 A 경사 등 현직 경찰관들이 불법 게임장 업주 Y(48)씨에게 금품과 접대 항목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운영 혐의로 최근 구속된 Y씨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게임장을 수차례 제보했고, 경찰관에게 식사까지 건넸는데 단속된 것은 너무한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경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게임장 업주인지도 몰랐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정비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군민시설/월매 대표이사 010-7570-7525	에버랜드/월매 대표이사 010-2648-2550	주목/지개발 손이사 011-9611-2817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면적	면적	면적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면적	면적	면적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면적	면적	면적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면적	면적	면적

속박시설/상가 김이사 010-8033-8114	군민주목 박명장 010-2611-5598	광장/모지 신희정 010-9660-3225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면적	면적	면적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면적	면적	면적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면적	면적	면적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소지지 대지/건물
면적	면적	면적

쌍문동 2중주거지역매매	우산동 7층 목욕탕, 사무실	중흥동 세너스 1층	차량동 아파트	금호캐스트빌	용봉동 노래방 상가주택	양동 객실 18개 모텔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대지 2339㎡

에너지 비상

난방비 걱정! “히팅레일”로 해결!!

기름값의 1/4, 가장 경제적입니다.

◆ 탄소를 소재로 한 특허제품(10-0736741호)

- ◆ 안정성 : 99.9%
- ◆ 하자 : 99.9% 하자가 없음.
- ◆ 환경오염 “0”, 쾌적난방
- ◆ 사후관리 : 고장없음. 반영구적임.
- ◆ 보일러실이 필요 없음.
- ◆ 시공비도 저렴합니다.
- ◆ 소비자 만족을 보장해 드립니다.

※ 눈으로 직접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전기 사용시설에 좋습니다

- ★ 병원, 유치원, 요양원
- ★ 기숙사, 고시원, 음식점
- ★ 복지시설, 종교시설
- ★ 모텔, 오피스텔
- ★ 현장사무실, 일반상가

가정용 전기는 전기요금 누진체제로 적용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에서 지타나 히팅레일을 꼭 검색해보세요

난방면적(m²)	시설비	원 전기료
33	165만원	47,600원
66	330만원	95,200원
99	495만원	142,800원

• 상담 전화 •

GT 주식회사 지타나 호남지사 | 전남 062)523-1990
GTTouch Co., Ltd. | 전북 063)223-1991